

# 사랑의열매

나눔으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ISSUE **158**   
2020 JUNE

모두의 나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  
모두 함께 즐겨요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리메이크 신곡 '화류춘몽'  
음원 수익 전액 기부  
가수 송가인

## 내 인생의 한마디

아너 소사이어티 18호 회원,  
유산 기부 세무 자문과  
시민참여위원장까지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 함께 극복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 착한기업

슬기로운 인구 변화 대응법  
인구보건복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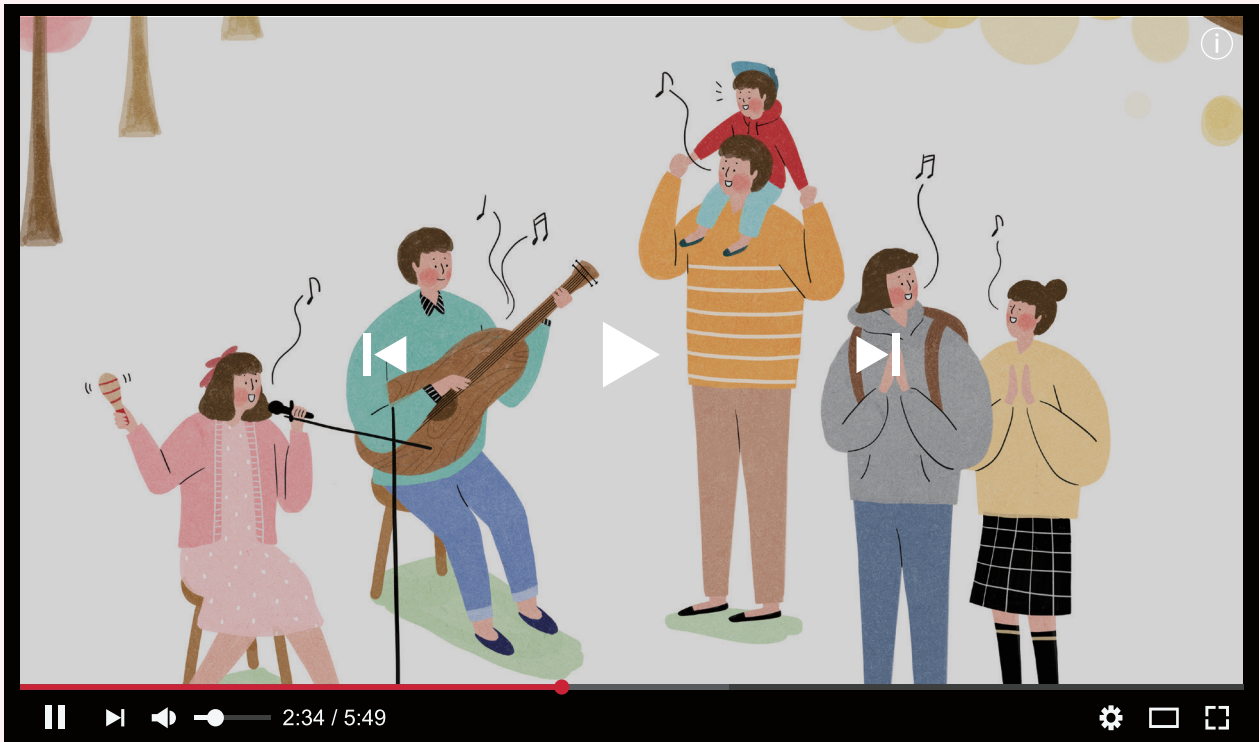
### “괜찮아~ 잘될 거야~”

사랑의열매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일환으로 응원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라는 멜로디 익숙하시죠? 이한철의 ‘슈퍼스타’라는 노래로 18인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음원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이 음원의 수익금은 전액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기부합니다. 여러분도 지친 일상을 위로하며 ‘슈퍼스타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인증샷은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참여해주세요.

**#슈퍼스타챌린지 #괜찮아잘될거야 #힘내라대한민국 #사랑의열매 SMILEWITHTIKT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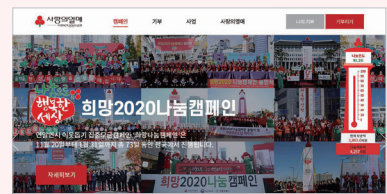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사랑의열매 홈페이지(chest.or.kr)를 참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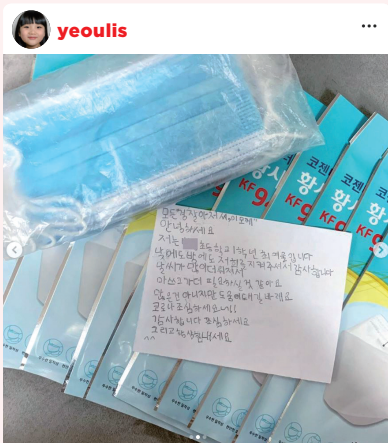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공식 SNS**

인스타그램 @fruits\_of\_love 
 페이스북 @chestkorea  
 블로그 blog.naver.com/nanum\_in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JCLW5U-CQXMvLrXDoiawOg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http://chest.or.kr)





♡ 🔍 📄 ... 📌

#착한어린이 #마스크기부  
 엇그제 저녁 여울이가 경찰 아저씨께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싶다고 했다.  
 여울이가 쓴 편지랑 마스크, 소소한  
 간식거리를 챙겨서 근처 지구대에 혼자  
 들러보냈다. 잠시 후 여울이랑 경찰 두 분이  
 나오셔서 너무 고맙지만 요즘 마스크를  
 주시는 분이 많아 상부 지시로 얼마 전부터  
 못 받게 되었다고 마음과 편지만 받겠다고  
 하셨다. 여울이에게 고맙다고 따뜻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했다. 주민센터에는  
 기부가 가능하다고 알려주셔서  
 토요일이라 닫힌 주민센터 서터 안쪽으로  
 어려운 분께 드리고 싶다는 메모와 함께  
 마스크 봉투를 넣어두고 집으로 가는 길.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많구나.  
 살만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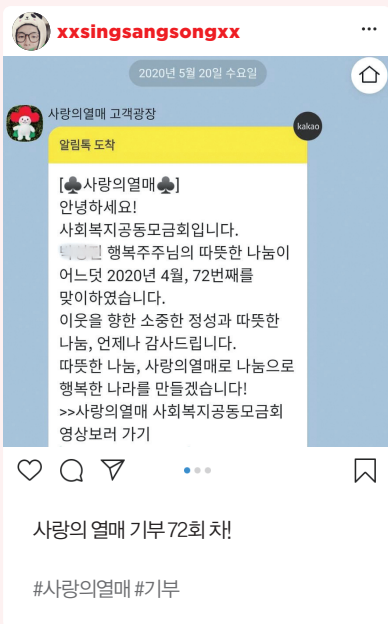
♡ 🔍 📄 ... 📌

하람이와 함께 이벤트 참여  
 #슈퍼스타챌린지 #팬찮아잘될거야  
 #힘내라대한민국 #사랑의열매



♡ 🔍 📄 ... 📌

#귀욤지우 #예쁘지우  
 #재난지원금신청하러농협  
 #사랑의열매 #궁금하신답님  
 #성금넣고하나득템 #귀요미  
 #부끄러워하긴 #사랑하는마음



♡ 🔍 📄 ... 📌

사랑의 열매 기부 72회 차!  
 #사랑의열매 #기부

**PLUS EVENT**

**책 뒤표지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을까요?**

**참여 방법** 숨은 그림을 찾아 인증샷을 본인의 SNS에 올려주세요. 해시태그를 달고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우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필수 해시태그**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당첨자 선정** 인증샷을 올려주신 5명에게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나눔태그**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의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CONTENTS



## 사랑의열매

vol. 158 2020. 06

발행인 예종석

발행일 2020년 6월 / 통권 158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연간 기획

모두의 나눔\_C-SDGs 연계 배분 사업  
⑥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2

04 문화 평등 사회를 꿈꾸며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  
모두 함께 즐겨요

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10 커버스토리  
"이웃사랑도 송, 가인이어라~"  
가수 송가인

14 내 인생의 한마디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18 함께 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20 동네방네  
경기 사랑의열매



- 22 **2019 배분 현황**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잘 전달했습니다
- 24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나눔 인터내셔널
- 28 **착한기업**  
인구보건복지협회
- 32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 황희 센터장

- 34 **나눔 트렌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기업 &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비영리단체
- 36 **착한동네**  
수려한 자연 풍광을 간직한 경북 칠곡
- 40 **문화로 보는 나눔**  
예술로 만나는 이웃 이야기

- 42 **나눔 이슈 1**  
제22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 43 **나눔 이슈 2**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슈퍼스타챌린지
- 44 **전국 지회 뉴스**
- 55 **이달의 아너**
- 56 **독자 페이지**

문화 평등 사회를 꿈꾸며

#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 모두 함께 즐겨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여가와 문화는 행복한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여가와 문화를 즐기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사랑의열매는  
누구나 쉽게 즐기는 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폭넓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글이선희 사진각나눔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2020년에는 매달 사랑의열매 지속가능발전목표인 C-SDGs의 16개 목표 중 하나를 선정해 주요 배분 사업과 함께 소개한다. 이번 달은 10번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중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소개한다.

10 사회적 배제 감소와 불평등 완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참여자가 39km를 함께 걸으며 서로 존중하는 법을 깨닫는다.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 인식 개선 평화누리길 종주 투어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는 장애를 고려해 더 배려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과 편견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 참여자가 일대일로 팀을 이뤄 2박 3일 동안 약 39km를 종주하는 '장애인과 나란히 바꾸는 세상' 사업을 진행했다. 비장애 참여자에게 경험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발달장애인에게는 완주 후 성취감과 자신함을 선사했다. 종주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또래 문화를 공유하고 즐기는 친구가 되는 등 짧은 시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 장애인-비장애인 공감 연극 학교

(사)행복공장에서는 <나의 이야기 극장> 공연을 통해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소통을 늘리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의 이야기 극장>에는 배우 외에도 컨덕터(진행

자), 수어통역, 라이브 뮤지션이 무대에 오른다. 청각장애인과 컨덕터가 수어로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하면 관객은 수어통역을 거쳐 듣는 방식이다. 무대 위 배우와 연주자들은 들은 이야기를 즉흥극으로 표현하고, '눈으로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산된 영상과 조명을 활용해 연극을 완성한다. 공연 내용은 이음센터에서 5월 30일과 6월 27일에 온 오프라인 동시공연 예정이다. 이 외에도 청각장애인 생활 연극 전문가 과정, 배리어 프리 공연장 조성 및 연극 언어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나의 이야기 극장> 무대에 오르기 전 연습하는 공연 팀



### 지역아동센터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참 특별한 하루’

(사)부스레기사랑나눔회는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역사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봄, 여름, 가을 계절별로 3회씩 총 9회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수도권 지역아동센터 9개소의 아동·청소년, 인솔자 270명에게 ‘참 특별한 하루’를 선사했다. 봄에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과 경복궁, 여름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서울함 공원, 가을에는 한양도성 낙산 구간과 국립어린이과학관을 방문해 관람과 체험을 했고, 계절마다 난타·뮤지컬 등 공연 관람까지 더해졌다. 프로그램 진행 전 참가자 중 사회·역사적 지식을 모른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참 특별한 봄날의 하루’를 만끽하는 아동·청소년들



1 서울함에서 잠수경을 체험하는 ‘참 특별한 여름날의 하루’ 프로그램

2 제주도의 문화와 예술, 자연을 체험하는 ‘우리 함께 휴요일’

고 답한 비율이 69%였으나 활동을 통해 89%가 매우 잘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자긍심 향상 등 참여 아동·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 위탁 아동 문화 체험 지원 사업 ‘우리 함께 休(설 휴)요일’

위탁 아동은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견학·여행 등 체험 학습은 엄두도 못 내며, 학교생활 이외의 활동이 거의 없어 일반 가정 아동보다 문화 체험 경험이 확연히 적다. 대 전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KGC인삼공사의 지정 기탁을 받아 위탁 아동을 위한 2박 3일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위탁 아동들은 김녕미로공원, 만장굴, 에코테마파크 등을 둘러보며 제주도의 문화 예술을 체험했다. 여행 기간 동안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트레스와 문화 욕구를 해소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다.





프로 농구 경기를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며 스포츠의 즐거움을 생생하게 느낀다.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서 지원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역사 연극 공연

극 중 덴마크 왕자로 나오는 햄릿을 한국에서 한국인이 연기하듯 연극은 인종, 국적, 나이, 성별을 넘나드는 경계 없는 예술이다. 한국연극인복지재단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이 역사적 인물을 연기하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견의 경계를 허무는 사업을 진행하고

고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30명은 희곡을 읽으며 한국어 능력과 문학작품 이해력을 향상하고, 신체 훈련을 거치며 무대 위 움직임과 팀워크를 배운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역사 사건을 연극으로 제작해 이들 청소년이 관객 앞에서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의 자존감과 성취감과 높여주고, 공연을 보는 관객에게는 다문화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역사 사건을 연극으로 제작해 직접 무대에서 연기하는 청소년들

## 문화 소외 계층 스포츠 관람 지원 사업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SK그룹의 후원을 받아 문화 소외 계층에 스포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가정 등 아동·청소년 총 1만 3,255명에게 야구·농구·축구·핸드볼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식사 및 기념품, 응원 도구, 버스 대절 등을 제공하며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족이 함께 여가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의 재발견'

### 치매노인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치매 친화 상영 프로그램 개발

치매를 앓는 사람에겐 영화를 보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장소나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을 느끼거나 영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에서는 치매노인이 편안히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상영 전 극장 시설을 점검하고, 상영 전후 노인 여가 활동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간단한 신체 활동을 하는 등 치매노인에게 모든 조건을 맞추는 치매 친화 상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회차가 진행될수록 참여자가 늘어나고, 3회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선별 검사 결과 5% 호전되는 등 놀라운 변화를 나타냈다. 극장 외에도 노인 요양원 내 치매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영 역시 무리 없이 진행하며, 치매 친화 상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문화 예술 재능 나눔을 통한 행복한 가족 만들기 '가족의 재발견'

(사)한국자원봉사포럼에서는 저소득·취약 계층의 문화 예술 소외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을 인지하고 그들의 여가

문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시민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능 기부, 봉사 활동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존 복지 프로그램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취약 계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능 발굴&티칭 클래스도 진행했다. 음악, 미술, 국악, 체육 등 문화 예술 전문가와 그룹별로 매치해 체계적인 문화 예술 교육이 이루어졌다. 참여 아동·청소년들이 재능을 발굴하고, 문화 예술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가족 여가 문화 활동 프로그램과 가족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예술 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영화를 보기 전 간단한 신체 활동을 하는 참여자들



미술 활동 중인 4각사각문화예술학교 어르신들

### 문화 복지 마을공동체 '4각사각'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적 배제로 발생하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문화 예술 공동체 활동을 통한 치유·향유·공유 프로젝트를 기획,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가 문화 예술 공동체 역량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치유·향유·공유의 3개 영역 10개 세부 사업을 운영한다. 지난해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4각사각 주민 문화 예술단 운영 컨설팅 활동 '팍팍', 단지 내 문화 예술제 '4각사각 축제 2020' 등 5개 사업을 새롭게 선보인다. 주민들이 문화적 역량을 주도적으로 창출, 공유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뿌리내림으로써 '문화 복지 마을공동체'로서 영구임대아파트 혁신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다.



음악 활동으로 난타의 기본 가락을 체험하는 어르신들



### 지역 통합 음악 시스템 '보현윈드오케스트라'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은 제도권에서 벗어나 그들만의 생활을 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자연스레 지역 주민과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거리감으로 확대되었으며, 끝내 관계 단절까지 초래했다. 서울 시립 영등포보현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지역 주민과 노숙인이 악기를 배우며 보현윈드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연주회 및 공연 등으로 참여 단원들의 자존감과 자활 의지를 고취시켰고, 노숙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잠실야구장에서 애국가를 연주한 오케스트라 단원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리메이크 신곡 '화류춘몽' 음원 수익 전액 기부

“이웃사랑도 송, 가인이어라~”  
가수 송가인



2020년 최고의 스타 송가인이 <사랑의열매> 6월호 표지 모델로 동참해주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국민을 응원하기 위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코로나19 극복 지원 성금과 의료진을 위한 지원 물품, 리메이크 신곡 음원 수익 전액 기부까지 한 송가인의 마음 씀씀이가 그녀의 인기만큼이나 따뜻하다 못해 뜨겁다. 글강은진 사진MBK엔터테인먼트제공

## 뜻깊은 일은 언제나 행복

요즘 누가 최고 인기 스타냐고 묻는다면 열의 아홉은 가수 송가인을 꼽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열의 열이 모두 이의 없이 송가인에 엄지를 척 들 것이다. 그만큼 송가인의 인기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정통 국악을 전공한 송가인은 오랜 무명 생활을 거쳐 지난해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우승하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뿐 아니라 침체된 우리나라 전통 트로트를 다시금 부활시키는 견인차 역할도 했다. 환하게 웃는 송가인의 매력은 세대를 불문하고 강하게 어필한다. 하지만 송가인의 인기는 실력에서 비롯한다. 어려서부터 정통 코스를 밟아온 국악의 기본기는 트로트에서 무서운 힘을 보여준다. 저음에서 고음까지 가리지 않는 파워풀한 소리와 묘한 허스키 보이스가 섞인 음색은 남자 가수의 노래까지 커버하기 충분하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시무시한 실력을 갖춘 최고의 스타가 탄생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송가인의 스타 탄생 스토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중에게 아직은 신인처럼 느껴지

는 송가인이 코로나19 상황에 성금을 기부하는 등 이웃사랑에도 나섰기 때문이다.

## 팬들과 함께 성금 기부 이어 음원 수익까지

송가인은 자신의 공식 팬카페 어게인(AGAIN) 회원들과 코로나19 관련 성금 3,244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에 동참했다. 대구 지역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보탬이 되고자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송가인의 나

“

코로나19 기부부터 <사랑의열매> 표지 모델까지 뜻깊은 일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특히 제가 잘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구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



눔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최근 발표한 리메이크 신곡 '화류춘몽'의 음원 수익금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액 기부하기로 결정한 것. 이뿐 아니라 국민에게 건강한 일상을 되돌려주고자 코로나19 현장에서 불철주야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과 응원을 전하며 후원 물품을 전하기도 했다. 또 얼마 전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며 작은 나눔까지 함께하는 세심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엔 서로서로 도와가며 같이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원 수익 전액 기부도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 떠올리고 주저 없이 결정한 거예요.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행복해요.”

### 무명 시절부터 꿈꾼 나눔

송가인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행복하다고 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도 자주 했다. 사실 나눔이란 게 마음은 있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힘든 면이 있다. 그런데 송가인은 일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중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에 기꺼이 동참했다.

“저는 힘들었던 무명 시절부터 ‘나중에 잘되면 꼭 누군가를 돕고 후원해야지’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나눔이나 봉사 그리고 기부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놓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좋은 일에 항상 동참하고 싶어요.”

무명 시절부터 나눔을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송가인의 말이 놀랍다. 송가인은 어렵던 무명 시절 행사장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비녀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지금은 비록 천막에서 대기할지언정 ‘나중에 잘되면’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하의 송가인도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진 못했다. 행사 스케줄이 모두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행사는 전부 취소됐지만, 그동안 행사 때문에 하지 못했던 방송 스케줄이 많아져서 바쁘게 지냈어요. 이렇게라도 팬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기도 했지만 정말 무대가 그립고 팬 분들을 못 본다는 것이 너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신곡으로 만나요!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송가인은 쉬는 시간이 있을까? 있다면 뭘 하고 지낼까 무척 궁금했다. 송가인에게 어떻게 휴식하는지 물었다.

“요즘 스케줄이 조금씩 빌 때면 친구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노는 게 제겐 큰 즐거움이예요. 휴식이기도 하고요. 또 짹짹 노래 연습도 열심히 하고요. 아, 시간이 없어서 못 한 운동도 시작했어요.”

송가인의 유쾌한 친구들은 방송에도 여러 번 공개됐다. 하나같이 출중한 노래 실력을 뽐내는 친구들이다. 모두 국악을 전공한 송가인의 음대 동기들이다. 가수로서 송가인의 계획도 궁금했다. <미스트롯>에서 우승한 후, 광고계 최고의 블루칩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지금, 송가인의 목표는 무엇일까?

“앞으로 더욱 뜻깊은 일에 계속 참여해서 기부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또 가수로서 많은 곡을 연습해서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신곡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좋은 곡 만들어서 팬



“

저는 힘들었던 무명 시절부터 ‘나중에 잘되면 꼭 누군가를 돕고 후원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나눔이나 봉사활동, 그리고 기부 같은 부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

들과 만나고 싶어요. 그게 가장 큰 목표이자 바람이죠.”

송가인의 노래를 듣는 것은 팬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간절히 원하는 일이 아닐까. 요즘 같은 힘든 시기에 무엇보다 큰 위로와 응원이 될 테니까 말이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송가인은 잊지 않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저도 누구보다 힘든 무명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버텼거든요.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으니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저도 노래로 열심히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송가인의 멋진 신곡 응원을 기대해본다. 🍀

내 인생의 한마디







아너 소사이어티 18호 회원 가입하고...유산 기부 세무 자문과 시민참여위원장까지  
천지세무법인 박점식 회장

## “베풀고 살라던 어머니 말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섬마을에 사는 홀어머니와 어린 외아들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다.  
가난했지만 늘 남에게 베풀며 살라던 어머니와 무던히도 속을 썩였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공한 아들.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18번째로 가입한 박점식 회장이다. 글강은진 사진 이승재



###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

박점식 회장은 말 그대로 회장님이다. 세무사로 자수성가해 국내 굴지의 ‘천지세무법인’을 키워냈다. 게다가 사랑의 열매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고 유산 기부 세무 자문까지 하고 있다. 또 사랑의열매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시민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모금과 배분·조직 운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천지세무법인’ 임직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상여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단체와 재단에 후원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그야말로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이다. 이런 박회장의 성공과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시작은 저 멀리 외딴 섬마을 흑산도에서 시작한다.

“제가 다섯 살 무렵, 홀로 되신 어머니가 당시 외삼촌이 계시던 흑산도로 가셨어요. 섬마을에 사는 홀어머니와 어린

외아들의 삶... 어땠겠어요? 다들 가난한 시절이었다지만 홀어머니와 외아들은 더 어렵죠. 어머니는 저 하나 잘 키워 내시겠다고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일하셨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형편에도 늘 남에게 베풀고 살라는 말을 밤마다 잠자리에서 수도 없이 하셨지요. 아마 그런 어머니 말이 쌓이고 쌓여 제 잠재의식 속에 आरो새겨진 것 같아요.”

박 회장은 어머니의 베갯머리 교육 덕이라고 말했다. 성인이 돼 막 돈을 벌기 시작한 때에도 TV에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면 마음속 어디선가 ‘저거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하는 생각에 조바심치곤 했다고 한다.

### 첫 기부, 그리고 아너 가입까지

박 회장의 생애 첫 기부는 30여 년 전 모교인 흑산초등학교 교문 수리비 100만 원이었다. 좋은 일에 나서고 싶었지만,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기부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도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이상

하게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박 회장이 기억하는 첫 기부다.

“중합부동산세법 개정이 확정될 즈음 대학에서 조세법을 강의하고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과 찬반 논쟁을 하는데, 저는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한 학생이 ‘세금 환급받으면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묻길래 ‘난 받으면 바로 기부할 거다’ 했죠. 학생들하고 한 약속이니 아무 데나 기부할 수 없잖아요. 그게 사랑의열매와 처음 인연을 맺은 계기였어요.”

박 회장은 세금을 환급받자마자 바로 우체국에 가서 사랑의열매에 보낸 기억이 생생하다. 그 후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사랑의열매를 담고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인연은 자연스럽게 박 회장의 시선을 아너 소사이어티로 이끌었다.

“신문에서 아너 소사이어티 관련 기사를 봤어요. 생긴 지 3년이나 됐는데, 17명밖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오보인 줄 알았더니깐요. 그래서 사랑의열매에 바로 전화하니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한테 좀 충격이었지요.”

## 결국 모든 답은 어머니

박 회장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후 여러 인터뷰에서 어떻게 거액을 기부하게 되었는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냥 했다”고 대답했다. 물론 망설임은 없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난 지금의 마음은 다르다.

“당시에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을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야 알았어요. 2011년에 어머니가 아프시기 시작하면서 1,000통의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해 나중에 책(《어머니》, 울림출판)으로 내기도 했어요. 어머니에게 고마운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었다는 것어요.”

박 회장의 어머니는 “잘되라”는 말 대신 “바르게 살라”고 말하는 분이셨다. 남을 돕는 일에는 껍떡한 살림에도 “뭐 하러 하느냐”, “나중에 해라” 같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박 회장은 어머니를 무서운 호랑이 같은 분이라고 기억한다. 하지만 그 무서운 호랑이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  
 다 저희 어머니의 베푼머리  
 교육 덕입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어머니는 매일같이 잠자리에  
 들 때면 남에게 베풀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어머님 말씀이  
 제 마음에 아로새겨진 것 같아요.  
 ”

을 잘 키워내기 위해 고단한 몸을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  
 댁에 가곤 했다. 선생님 댁 허드렛일을 도와드리며 아들이  
 한 글자라도 더 배우길 바랐다. 한국의 어머니 표본 그 자체  
 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호랑이 역할도 기꺼이 감수한 우리  
 네 어머니 말이다.

### 이제는 아들 통해 세상 이해해

오늘의 박 회장을 키운 사람이 어머니라면, 박 회장을 만든  
 사람은 아들이다. 서른을 훌쩍 넘긴 박 회장의 장남 동훈  
 씨는 근위축증을 앓고 있다. 근위축증은 온몸의 근육이 천  
 천히 마비되는 희귀 질환이다. 두 살 때 발병해 지금까지 투  
 병하고 있다. 그런데 상태가 호전돼 재택근무로 회사 일을  
 조금씩 배우다 이제는 매일 출근까지 하게 됐다.

“스무 살 무렵이 한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이라고 하더군  
 요. 아들이 첫 출근을 하던 날, 애 엄마가 감격해서 많이 울  
 었어요. 아들이 비장애인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저  
 닳아 속을 썩였겠지요?(웃음) 아들은 제게 빛과 소금 같은 존  
 재예요.”

박 회장은 아들이 있기에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  
 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제는 세상을 떠난 어머  
 니부터 늘 묵묵히 곁을 지켜준 아내, 그리고 아들과 딸까지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늘 부족한 자신에게 맞



춰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쩌면 박 회장의 다  
 음 감사 편지를 받을 사람은 가족이 아닐까.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토론  
 을 했어요. 세액공제에 반대하는 한 교수가 그러더군요. 기  
 부할 정도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왜 세제 혜택을 많이 해줘  
 야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대뜸 물었죠. ‘교수님, 기부 안 해  
 보셨죠?’ 기부하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받은 것도 다 다시  
 기부하거든요. 아니, 더 보태서 하죠. 기부, 해보면 알아요.’  
 왜 끊임없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봉사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박 회장이 한 대답이다. 선하지만 강력한 중독  
 이라면서 말이다. “기부 안 해보셨죠?”라는 박 회장의 되물  
 음, 여운이 길다. 🍀



29일 사랑의열매에서 (가운데 왼쪽부터) 김연순 사무총장, 김보성 홍보대사, 예종석 회장, 신혜영 자원개발본부장과 사랑의열매 직원들이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응원메시지 촬영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사랑의열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대국민 기부 참여 캠페인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글 강은진 사진 김기남

##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로 발생하는 이웃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열매가 마련했다. 사랑의열매는 기존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일시적 소득 상실로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으로 코로나19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다양한 위기 가정을 돕고자 나섰다.

캠페인은 전국 사랑의열매 17개 시도에서 4월 27일부터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위기 가정의 긴급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양육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나눔으로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졌다. 4월 29일, 한국배구연맹과 프로 배구 6개 구단이 시총 상금 1억 4,000만 원을 기부하며 ‘힘내

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따뜻한 마음을 더했다.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김보성은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은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응원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다. 이번 캠페인이 더욱 잘될 수 있도록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나눔캠페인에 힘을 보탰다.

지역에서도 재난기본소득 기부, 급여 나눔, 커피값 기부 등 나눔캠페인을 통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주)좋은아침 페스츄리가 ‘서울 역삼 직영점’의 한 달 매출 전액을 기부하며 소상공인이 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줘 주목을 받았다. 경북에서는 안동대학교 교수회 270여 명의 회원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을 전하기도 했다. ♣

### 기부 참여 방법

사랑의열매 홈페이지 [chest.or.kr](http://chest.or.kr)

기부 상담 080-890-1212

#함께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 코로나19 위기탈출 나눔 No.1

지치고 힘든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을 돕는  
범국민 나눔캠페인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나눔으로  
용기와 희망을 전하세요!





시민사회시민단체들과 지난 4월 21일 진행한 재난기본소득 기부 공동캠페인 업무협약식

### 평범한 이웃들의 나눔 릴레이

# 재난기본소득 기부 #함께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예로부터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나보다 더 힘든 이웃을 도우며 상황을 극복해왔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번에도 각계각층의 경기도민들이 힘을 모았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경기 사랑의열매는 4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난기본소득 기부, #함께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양보해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기부 참여는 경기 사랑의열매 특별 모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의 기부 신청 안내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캠페인 시작과 함께 경기도 지자체와 기업 임직원부터 장애인연합회, 시민 단체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자발적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눔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기도 곳곳에서 나눔의 물결이 일렁였다. 캠페인 기간에 모인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과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 위기 앞에서 더 빛나는 나눔 재난기본소득 기부에 동참한 경기도민

### 수원시의 착한기부 캠페인

재난기본소득을 간소한 절차로 기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수원 시민 A씨의 제안으로 ‘착한기부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후 수원 전역으로 빠르게 캠페인이 확산되어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수원시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착한기부를 실천해 화제를 모았다. 복지여성국 소속 직원 110여 명이 기부에 동참했고, 도로교통사업소, 환경국 등 여러 부서에서도 정성을 모았다.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계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착한기부를 통해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길 바란다”며 기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외에도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시민은 물론 각종 단체와 기관의 기부가 이어지는 등 나눔 열기가 뜨거웠다.

### 배제 없는 재난기본소득 시민들이 만들자 업무 협약

지난 4월 21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재난기본소득 기부 공동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이주노동자 등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기도민을 지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5월 31일까지 경기 사랑의열매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 시민연구소 울림이 함께 나눔캠페인을 진행했다.

### 나눔에 뜻을 모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지난 4월 22일 ‘재난기본소득 기부, #함께극복을 위한 우리의 실천’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가입식을 통해 임직원과 가족 40여 명이 기부에 참여하기로 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회장은 “재난기본소득 나눔을 통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다.

### 안양시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캠페인

지난 4월 27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김선화 안양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동안·만안구청장 등 간부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 100여 명의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캠페인에 돌입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시·구청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모금함 또는 농협 모금 계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나눔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나눔에 뜻을 모은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수원시의 착한기부 캠페인

한해 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잘 전달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매년 성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2019년 한해 동안 모인 소중한 성금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기초 생계 지원부터 문화 격차 해소까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했다. 글 이선희

2019년 5,958억 원 지원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배분 명세를 공고한다.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나 해당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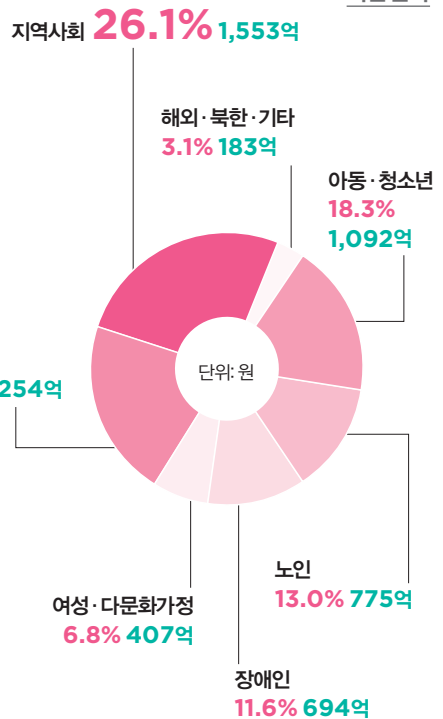
## 사랑의열매는 모두를 돕습니다

대상별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총 7개 대상 중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전달한 곳은 지역사회에 1,553억 원(26.1%)이었고, 다음으로 위기 가정(21.1%), 아동·청소년(18.3%) 순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노인 기관이 9,070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청소년 기관 6,940개소, 지역사회 기관 5,243개소 순이었다. 개인으로 살펴보면 노인이 18만 5,2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기 가정 10만 3,967명, 여성·다문화가정 7만 1,388명에게 전달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골고루 전달되도록 노력했다.

### 지원대상



### 지원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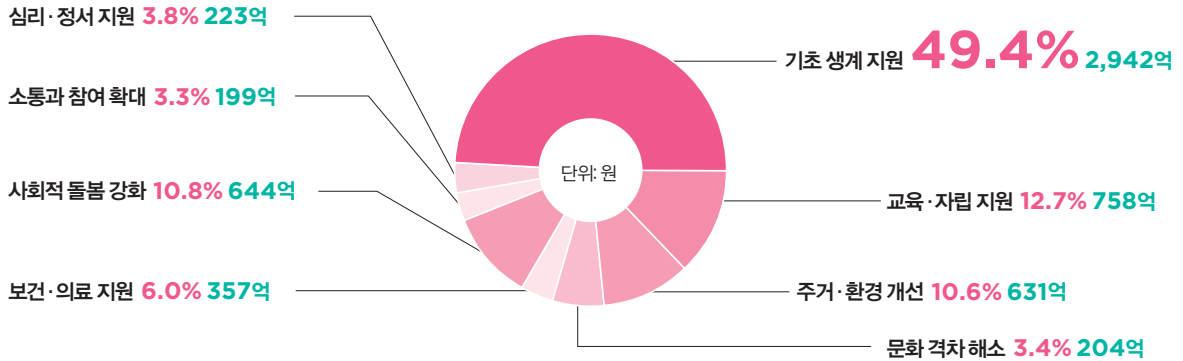




## 사랑의열매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사랑의열매는 총 8개 분야로 나눠 지원한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전달한 분야는 기초 생계 지원으로 전체의 49.4%에 달한다. 지원금 약 2,942억 원을 1만 4,048개 기관을 통해 41만 6,434명에게 전달했다. 이하 교육·자립 지원 12.7%, 사회적 돌봄 강화 10.8%, 주거·환경 개선 10.6%, 보건·의료 지원 6% 순이다. 개인으로 살펴보자면, 기초 생계

지원 분야가 총 41만 6,434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교육·자립 지원 2만 2,193명, 보건·의료 지원 1만 3,777명, 주거·환경 개선 2,750명, 사회적 돌봄 강화 2,249명, 문화 격차 해소 249명, 심리·정서 지원 209명, 소통과 참여 확대 127명 순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C-SDGs

배분 분야		관련 SDGs
기초 생계 지원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저소득 가정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1 빈곤 퇴치, 2 양질의 일자리
교육·자립 지원	교육과 자립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4 교육의 질 향상, 8 양질의 일자리, 9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생태계 개선에도 앞장섰다.	7 청정한 환경,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12 순환적 경제, 13 기후행동, 14 해양생태계 보전, 15 생태계 보전
보건·의료 지원	우리 이웃들이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도록 지원했다.	3 양질의 건강 서비스, 6 청정한 물과 위생
심리·정서 지원		3 양질의 건강 서비스
사회적 돌봄 강화	보호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의 안전한 삶을 지원했다.	0 취약 계층 보호
소통과 참여 확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과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를 만들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5 성평등,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 16 평화의 문화
문화 격차 해소		0 취약 계층 보호

나눔 인터내셔널

# “나눔의 씨앗으로 캄보디아 의료 평가 전국 1위 병원 만들었어요”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로 의식주를 꼽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건 의료다. 보건 의료는 국민 건강의 바탕이 되며 생명과 직결된다. 개발도상국에서 보건 의료 사업을 펼치는 나눔 인터내셔널의 활동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글강보라 사진제공 나눔 인터내셔널



응급실과 산과 전문 진료실을 갖춘 스텐트링 병원 개원식에서 의료진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눔 인터내셔널의 활동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가장 열악한 곳을 찾아 나선다. 나눔과 꿈 사업으로 진행한 캄퐁참주 치료 환경 개선과 의료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건강 증진 사업도 그랬다. 극빈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 그중에서도 의료 환경이 낙후한 캄퐁참주를 택한 것이다. 현지 상황은 주요 보건 지표인 영아 사망률과 모성 사망률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이 3.2명인 데 반해 캄보디아의 영아 사망률은 32.5명이고, 캄퐁참주는 45명에 달한다. 모성 사망률도 한국은 27명이지만, 캄보디아는 170명이며 캄퐁참주는 206명으로 자국 평균보다 더 높다. 한국과 비교하면 영아 사망률은 15배, 모성 사망률은 8배에 이른다. 이곳의 의료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1 병원 개원식에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과 캄퐁참주 주지사가 참석하고, 현지 방송국에서 취재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2 한국 의료진이 현지로 파견돼 이비인후과 진료 교육과 기술 전수를 진행했다.

### 캄보디아 캄퐁참주에 구축한 의료 인프라

나눔 인터내셔널은 나눔과꿈 장기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캄퐁참주의 병원 세 곳(캄퐁참 병원·뱃티에이병원·스팅트렁병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했다. 처음 의료 지원 사업을 펼

친 캄퐁참 병원은 3차 진료 기관이지만 실상은 열악했다. 이비인후과와 치과 병동이 한 건물에 위치했는데, 치과는 낡은 치과 유닛 2대로 이비인후과에는 장비도 없이 오래된 검안경만으로 진료를 하는 상황이었다. 2017년 첫 사업으로 이비인후과와 치과 병동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의료장비를 한국에서 구매해 탁송까지 마쳤다. 이후 2018년 지원한 스팅트렁 병원에서도 가장 시급한 방사선실을 개설했다. 진료의 기본이 되는 X-ray를 찍을 수 없어 뼈가 부러져도 멀리 다른 지역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캄퐁참 보건당국과 스팅트렁병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X-ray 장비를 한국에서 구매해 탁송하고 세관통관까지는 순조로웠으나 설치 작업에 다른 어려움이 발생했다. 방사선실 차폐를 위해 두꺼운 벽으로 공사를 하는데 열대지역인 캄보디아 벽돌들은 구멍이 뚫려 있던 것이다. 한국에서 온 설치 기술자가 많이 당황했으나 합의 끝에 벽돌 위를 납판으로 더 단단히 차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또 다른 문제는 방사선 기사가 착용할 차폐 보호장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 방문팀이 보호장구를 전달할 때까지 X-ray 촬영을 중단할 것을 권했지만 방사선 기사는 하루라도 더 빨리 진단하고 싶은 열의에



촬영을 하곤 했다. 나눔 인터내셔널에서는 이후 보호장구를 전달받은 병원 관계자들과 방사선 기사의 환한 웃음을 잇을 수 없다고 한다.

2019년 스텡트링병원에 응급실과 산부인과를 지원했다. 응급실과 산부인과에서는 수술이 일반적이지만, 당시 스텡트링병원은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출산할 때도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의료진이 수술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나눔 인터내셔널은 건물이나 설비 같은 인프라 지원 외에 국내 의료진 파견으로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에도 전력을 다했다.

### 전국 1위 병원 평가로 노력의 결실 맺어

나눔 인터내셔널의 나눔과꿈 사업이 성공적인 근본 이유는 현지 의료진의 역량 강화로 감보다야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였기 때문이다. 사업을 진행하던 3년 동안 병원 건물과 설비를 증축



하는 동시에 해당 과 전문의가 방문해 세미나와 단계적인 진료 교육을 실시한 결과다. 이는 한국 대학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조로 이룬 성과였다. 지속적인 전문가 파견, 의료진 교육, 장비 점검 및 수리 지원 등을 진행해 환자 검진과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었다. 사업 종결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위해 현지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매월 월별 보고서를 보내와 나눔 인터내셔널에서 환자 진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단순한 물자 탁송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현지 소통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료 외에도 병원의 회계, 정산 등에 대한 조언으로 병원 운영 프로그램과 진료 능력이 매년 향상된 성과도 있었다.

이런 성과는 2019년 최초로 실시한 캄보디아 보건부의 병원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나눔과꿈 지원을 받은 캄봉참 병원이 CPA1급 전국 1위, 밧티에이 병원이 CPA2급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 1 한국에서 주기적으로 각 과의 대학병원 의료진이 파견돼 캄보디아 의료진과 세미나를 함께 했다.
- 2 치과 물품 지원은 물론, 한국 의료진의 기술 전수로 현지 의료진의 역량이 눈에 띄게 향상했다.
- 3 한국에서 방문한 의료진과 기증 촬영을 하는 캄보디아 의료진





나눔 인터내셔널이 사회개발과 주민 건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캄보디아 정부 훈장을 수여했다. 3년 동안 진행한 나눔과꿈 사업으로 캄퐁참주 주민들의 보건 의료 환경이 개선되고, 관할 의료진의 역량 강화 덕에 환자 치료의 공헌이 크다고 인정한 것이다. 사업 종료를 앞둔 2019년 12월 스텝트링 응급실, 산과 병동 개원식에는 캄보디아 보건부 장관, 캄퐁참주 주지사를 비롯해 1,0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한국의 지원에 고마움을 전했다.

보건 의료는 사람을 위한 사업이다. 보건 의료 사업으로 위급한 생명을 구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 있었다. 나눔 인터내셔널은 그렇게 캄보디아의 희망이 되었다. 캄보디아를 넘어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나눔 인터내셔널이 심은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를 바란다. ❀



3



### 나눔 인터내셔널 김가희과장

#### “산전 검사로 산모와 아이의 생명을 구합니다”

사랑의열매 후원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사업을 담당하는 나눔 인터내셔널의 김가희라고 합니다. 이 짧은 편지로 캄보디아 산모들의 미소와 행복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임신하면 매달 산전 초음파검사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죠.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신 기간 동안 3회 이상 산전 초음파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고, 고위험군 산모의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 캄보디아 농촌 지역 산모들은 낙후된 환경으로 산전 초음파검사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거나, 1회에 4~5달러 정도인 초음파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그저 하늘에 맡기는 거죠.

나눔과꿈 사업으로 바티에이병원과 무료 초음파 산모 산전 검사(ANC)를 진행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행운이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세 번째 출산을 앞둔 고위험군 산모가 있었는데, 친정 언니와 오빠의 권유로 멀리 다른 지역에서 바티에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산모는 “먼저 낳은 두 아이는 출산 때까지 상태가 어떤지 몰랐는데, 지금 배 속 아이는 성별도 알고 얼굴도 볼 수 있어 안심입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눔과꿈의 의료 지원 사업은 이처럼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해주신 사랑의열매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료협력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_슬기로운 인구 변화 대응법

# 임신·출산·육아에 나눔 정신 더해 인구구조 문제 해결한다

임신과 출산을 원해도 경제적 형편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곳이 있다.  
1997년부터 소외계층에 아가사랑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다. 지금까지 지원한 아가사랑후원  
금액은 약 8억 4,370만 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이 밖에도 임신·출산·육아 등에 다양한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글강보라 사진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랑의열매와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업무 제휴 협약 체결 모습.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직원과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모은 아가사랑후원 성금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건강한 생명의 빛을 밝히기 위해 사랑의열매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손을 맞잡았다.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아가사랑후원사업을 통해서다. 사랑의열매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9년 7월 업무 제휴 협약을 맺으면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여 년간 홀로 맡아온 아가사랑후원사업은 사랑의열매를 만나 더욱 탄탄하고 견고해질 전망이다.

아가사랑후원금은 인구보건복지협회가 1997년부터 임직원·회원의 자발적인 회비와 모금으로 조성된 기부금이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가 어려운 소외계층 가정을 위해 마련했다. 저소득 가정의 만 15세 이하 정신지체아, 미숙아, 소아암·희귀난치성 질환아와 난임 가정 등이 그 대상이다.

2020년 현재 292명이 8억 4,370만 원 상당을 지원받아 어린 생명이 빛을 찾았다.

또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태아건강검진지원을 통해 산전 기형아 고위험군 판정을 받은 임신부 566명에게 검사 비용을 지원해왔다.

### 한 걸음 나아가간 임신부 배려 문화 정착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신부 배려 문화 정착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임신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신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54.1%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쓸쓸함을 안겨주었다. 그동안 임신부 배려 상징(엠블럼)을 부착한 임신부가 대중교통 전용 좌석을 양보받고, 직장 내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하는 등 다각도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아직은 배려 문화가 충분히 확산됐다고 보긴 어려운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신부 배려 엠블럼 가방

고리를 전국 보건소와 지하철 고객센터에서 나눠주고, KBS 아나운서협회와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한국철도공사 등과 지하철 캠페인을 진행하며, 초기 임신부를 포함한 모든 임신부가 공공장소는 물론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게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데 애쓰고 있다. 또한 모유수유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개설해 운영한다.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는 전국 모유수유시설 현황과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모유수유시설 위치 등을 안내하는 사이트다. 현재 전국에 위치한 2,900여 개의 공공 수유시설 현황을 소개하며, 자동차·대중교통·도보를 이용한 경로가 표시되는 '길 찾기' 서비스로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뜨거운 반응 얻는 임신·출산·육아 포털 사이트 '아이사랑'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신·출산·육아 포털 사이트 '아이사랑'을 운영하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와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부터 운영한 아이사랑 사이트의 회

● 1 임신·출산·육아 포털 사이트 '아이사랑' 메인 화면. 회원 수는 지난해 기준 약 343만 명에 이른다.



원 수는 2019년 기준 약 343만 명에 이른다. 또한 작년 한 해 임신·육아 상담센터에서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총 1만 3,800여 건의 상담이 이뤄질 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 산부인과 병·의원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 취약 지역의 임신부와 여성에게 부인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도 고성·양양·정선·횡성과 경상남도 의령·고성·산청·함양 등에서 총 3,000여 명이 산전 진료, 초음파검사, 태아 심박동 검사 등을 받아 아이 출산에 도움을 받았다.

### 교육, 상담, 자조모임, 의료 서비스를 한곳에서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신 준비기 여성, 임산부, 0~36개월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자조모임, 의료서비스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는 임신·출산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또래 엄마들과 공유하는 커뮤니티이자, 필수 육아 정보와 자녀와의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육아맘(육아대디)의 육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다.



1

- 1 수유시설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산모가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수유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2 임산부 배려 문화 정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지하철에서 임산부 배려 엠블럼 가방 고리를 나눠주고 캠페인을 펼친다.

전국 13개 시도 지회의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에서는 20~30대 건강 프로그램, 산전·산후 건강관리, 육아맘 힐링 지원, 영·유아 응급처치법 등 건강한 임신 계획부터 양육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 신뢰성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협회는 일상생활에서 육아의 가치를 존중하고, 가족·직장·이웃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캠페인을 추진한다. 일반 시민이 캠페인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 가족 편(슈퍼맘 방지법, 육아대디 지지법) ● 직장 편(직장 눈치 문화 제로법) ● 이웃 편(육아 혼수 주의법, 든든 육아 동참법)을 담은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 비법>을 공개했다.

### ‘시시콜콜 100인 토크’ 저출생 지역에 답이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 변화 대응과 건강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교육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임신부터 육아기의 다양한 교육과 정보, 상담을 제공하며 자조 모임을 지원하



2



고 있다. 또 전국 13개 가족 보건 의원을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 여성과 아동 건강센터 등을 운영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도 출생아 수는 30만 3,100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는 0.92명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첫 단계로 저출생 문제를 주목하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 '시시콜콜 100인 토크'는 지역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의 장이다. 시민이 원하는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저출생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비율이 높게 예측되는 울산, 경북 의성, 전북 전주, 충북을 중심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이 지자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언했다.



3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회. 지난해에는 총 636개의 토론 논제를 공모해 이 중 최종 채택된 세 가지 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4 '시시콜콜 100인 토크'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40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자리다.

아이를 키우는 맛벌이 가정이 많은 요즘, 부부가 육아를 함께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함께 '100인의 아빠단'을 전국 단위로 조직해 남성의 육아 참여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 많은 아빠가 모여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그동안 아빠들은 ● 자녀의 자존감 높이기 ● 아빠가 들려주는 우리 아이 첫 성교육 ● 아빠와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 교실 등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 현상을 대학생 시각에서 고민하고, 인구 이슈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대학생 인구토론회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총 636개 토론 논제를 공모해 최종 채택된 ● (현행) 결혼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나? ● 대한민국의 인구는 적정인가, 아닌가? ●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은 비워둬야 한다? 등 세 가지 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



세 자녀 돌마다 저소득 가정 아동 위해 기부한,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 황희 센터장

## “기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쑥스러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기부가 어렵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용기를 냈다. 전주시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 황희 센터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강은진 사진 사랑의열매, 전주시청



### 조금 특별한 기부

전주시에서 우리언어감각발달센터를 운영 중인 황희 센터장은 언어치료사이자 예쁜 세 딸 김태은(7세), 김하은(5세), 김초은(3세)의 어머니다. 사랑의열매 착한센터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기부를 이어오고 있을 뿐 아

니라 조금 특별한 기부도 하고 있다. 바로 세 자녀의 백일과 돌마다 성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대신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후원해온 것.

“특별한 계기나 거창한 이유는 없어요. 그저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돌잔치를 여는 대신 하

루 1만 원씩 1년에 365만 원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나눈 정도예요. 다행히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아서 실천할 수 있었어요.”

음성에서 선함이 느껴지는 황희 센터장은 큰아이 둘을 맞아 처음 기부를 준비할 때만 해도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몰래’ 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알렸으면 좋겠다고 설득하는 데다 자신의 기부를 통해 기부가 생각만큼 어렵거나 무겁지 않은 일임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된다면 더욱 뜻깊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밝혔다고 한다.

### 선한 영향력의 힘

“저희 센터가 착한 센터로 정기 후원도 하고, 제가 기부한 일도 알려지니까 다른 센터 원장님들이 어떻게 하면 착한센터에 가입하는지, 기부는 어떻게 하는지 많이 물어보세요. 자꾸 주위로 퍼져가는 것 같아서 무엇보다 고맙고 기쁘더라고요!”

황희 센터장은 기부의 기쁨을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다고 했다. 더없이 고마운 마음과 벅차고 뿌듯한 감정,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느끼는 행복감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부는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부담을 가지고 시작하는 일이 아니고,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결혼 전부터 언어치료사로 일하면서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나 책자를 통해 어려운 아이들의 소식을 접하면 도움을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정기적인 기부는 아니었지만요. 그래서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 나눔을 알아가는 아이들

황희 센터장의 예쁜 아이들 태은이, 하은이, 초은이는 자신들의 생일을 기념해 엄마 아빠가 좋은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까.

“아이들이 어리니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큰아이 태은이가 여섯 살 생일에 소아암 아이들을 위해 모발을 기부했거든요. 아이가 싫다고 하면 당연히 아이 의사를 존중해서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여섯 살 정도 되니까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태은이는 유치원에 머리카락이 없는 친구들이 없다며 처음에는 소아암 아이들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아이다운 발상이 귀엽다. 하지만 엄마 아빠의 설명에 흔쾌히 평생(?) 길러온 머리카락을 선뜻 기부했다. 글썄, 이럴 때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아닐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라고 왜 부담이 없겠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가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참 행복해요. 이런 저희 마음이 잘 전해져서 우리 아이들도 착하고 바르게 자라 우리보다 더 이웃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바랄 뿐이에요.”

황희 센터장은 기부란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법 같다고 했다. 마치 그 말을 하고 있는 황희 센터장처럼 좋은 사람 말이다. 🍀



예쁜 세 딸의 백일과 돌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기부해온 황희 센터장과 가족들

영리와 비영리의 이분법 구분이 사라진다

## 사회문제 해결에 나선 기업 &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는 비영리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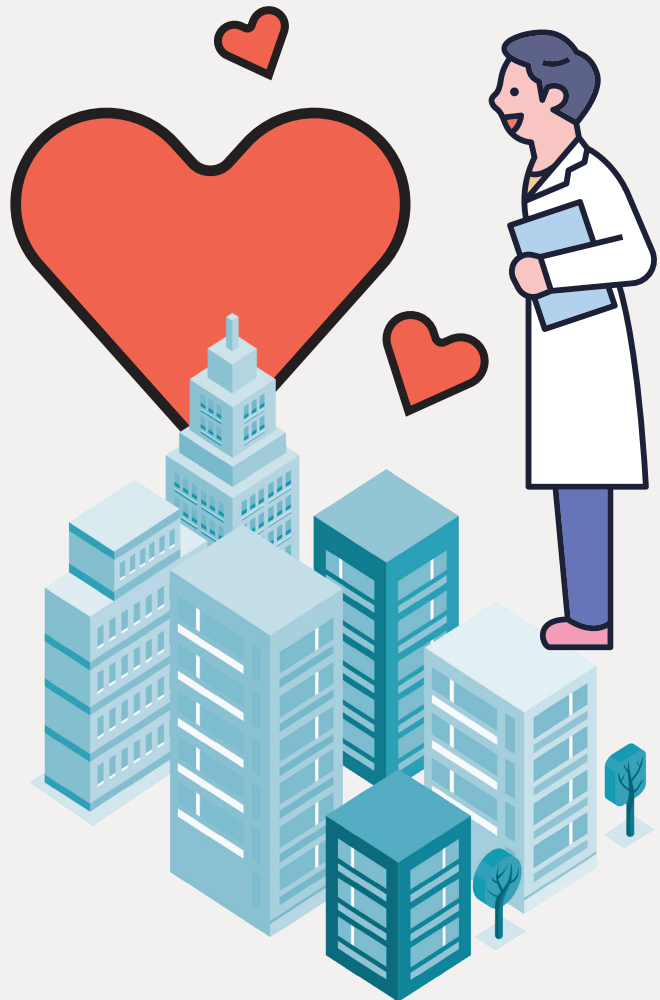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에서는 2020년 기부 트렌드 7개를 파악해 발표했다. 앞서 MZ 세대의 작은 참여,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과 참여형 기부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로 꼽은 트렌드 키워드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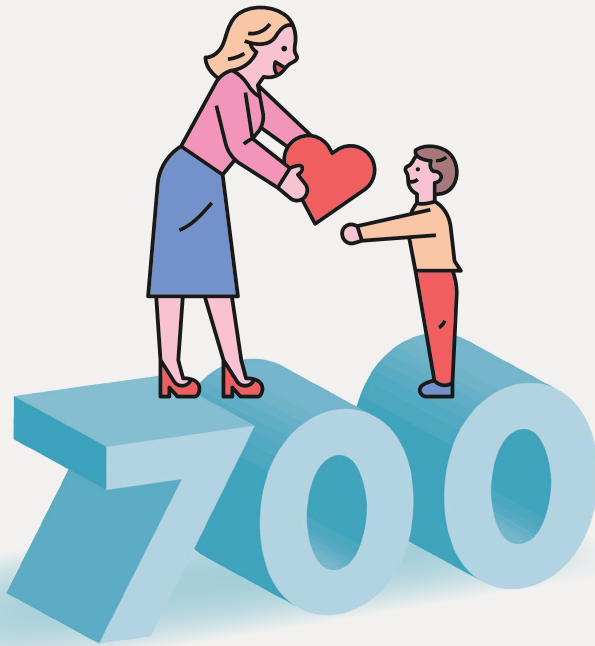
글 이선희 참고 자료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2020 기부 트렌드- 지나간 10년, 다가올 10년>

### 2020 기부 트렌드 ③

####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된 기업

2019년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로 가시화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는 2020년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선 활동에만 국한되던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마케팅과 사회 공헌 활동을 결합한 공익 연계 마케팅으로 진화했다. 또 기업이 재단을 설립해 사회 공헌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를 거쳐 이제는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기업 역시 개인 기부자와 마찬가지로 점차 자발성과 주체성, 주도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있다. 즉 이제는 경제적 이윤 창출만으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결과적으로 재무적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어 재계 일각에선 "사회 공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까지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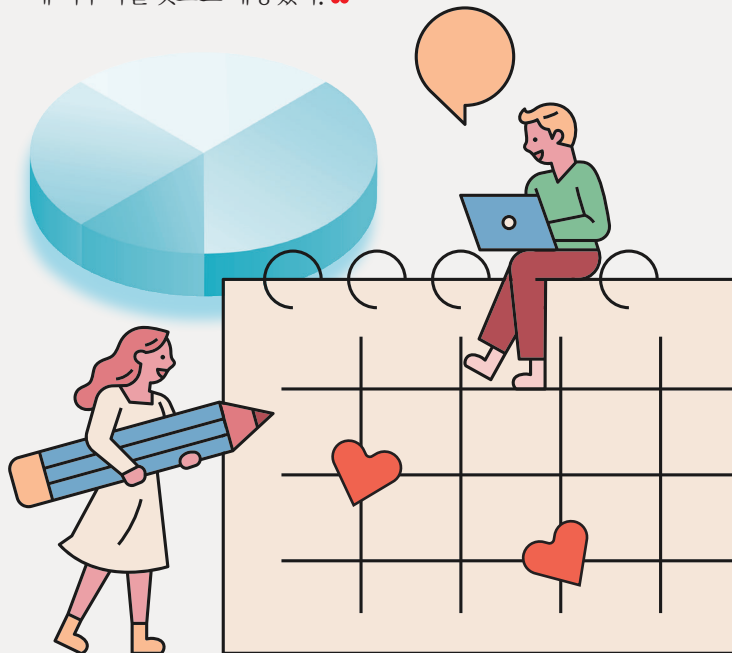
### 사회적 가치를 구체적인 숫자로 산출

KT, LG화학, POSCO, SK이노베이션, 유한킴벌리,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기업은 자신들의 업종 특성에 맞는 사회 문제를 선정,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 경영전략과 연계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특히 SK는 2018년부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해 경제적 가치(재무 성과)와 사회적 가치(사회 성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DBL(Double Bottom Line) 경영을 본격화했다. 또 기업의 재무 성과와 사회 성과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다양한 지표를 만들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SK 3사(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했는데, 그 규모가 총 12조 3,3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를 제품 가격 1만 원으로 환산해 계산하면, SK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700원에 해당한다. 비가시적인 사회적 가치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 2020 기부 트렌드 4

###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가치

2020년에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동안 정부와 공공 기관, 민간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보면서 이제는 '비영리단체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동안 영리 부문은 경제적 가치를, 비영리 부문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분법적 구분이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영리기업이 오히려 사회적 가치 논의와 측정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기업의 편당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측정하는 데 대해 압박을 느끼는 실정이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는 2020년은 비영리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



길따라 나눔 따라

# 수려한 자연 풍광을 간직한 경북 칠곡

경북 서남부에 위치한 칠곡군은 국난이 닥칠 때마다 승리를 이끈  
호국의 고장으로, 곳곳에 기념비적인 볼거리가 많다.

또 수려한 자연 풍경이 힐링을 선사한다.

언젠가 칠곡을 방문한다면 착한가게도 놓치지 말고 둘러보자.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칠곡군청 참고 자료 칠곡군청문화관광



## 내 마음속에 저장, 칠곡 대표 관광지



### 자연 지형을 이용해 축성한 조선 시대 산성

**칠곡가산산성**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잇따른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가산 요새에 삼중으로 축성한 산성이다. 가산의 해발 901.6m에서 산꼭짜기를 에워싸 해발 600m에 이르도록 내성·중성·외성을 쌓았다. 현재 가산산성의 성벽은 내성·중성·외성의 자취가 거의 남아 있고, 동문과 동암문은 비교적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약 100년에 걸친 조선 시대 건축 기법을 시대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주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 산 98-1 **문의** 054-979-6452



### 대한민국을 지킨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 6·25전쟁 당시 칠곡은 낙동강 방어선의 최전선이었다.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는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군과 유엔군이 치열하게 싸우며 수많은 병사가 희생되었다.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은 55일 동안 펼쳐진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세운 기념관이다. 호국전시관, 전투체험관, 유아평화체험관, 4D영상관에서 호국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다.

**주소**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 **문의** 054-979-5504

### 전국 최대 민간 정원에서 누리는 즐거움

**가산수피아** 지난해 4월에 개장한 전국 최대 민간 정원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산림 휴양 명소다. 총 4만여 평의 넓은 면적에 아름다운 분재원, 몸길이 42m의 브라키오사우루스 등 움직이는 초대형 공룡이 있는 공룡틀, 계절마다 달라지는 테마정원 등 보고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이 외에 수피아미술관, 카라반, 캠핑장 등 휴양 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을이면 분홍빛으로 물든 핑크물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한다.

**주소**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들안2길 105 **문의** 054-971-9861



### 다채로운 생태 체험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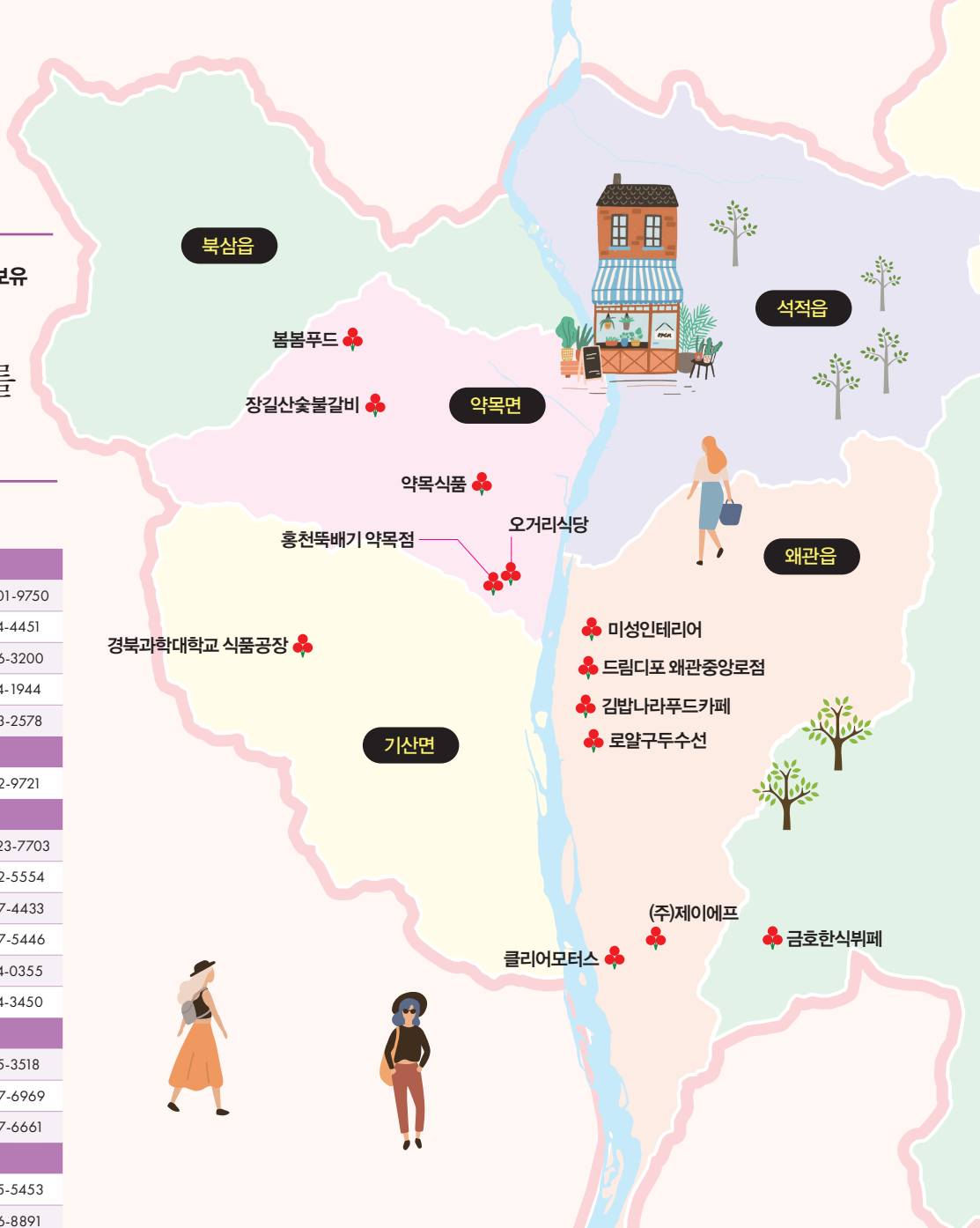
**꿀벌나라테마공원** 칠곡의 대표 특산품인 벌꿀과 꿀벌을 주제로 한 자연 친화적인 생태 체험관이다. 개관 1년 만에 관람 인원 15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서, 환경, 산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험을 제공한다. 밀랍 공방, 꿀뜨기 체험 등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주니어인저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주소**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1 **문의** 054-979-8315~9

경북에서 가장 많은 착한가게 보유

## 나눔의 고장 칠곡의 착한거리를 소개합니다

약목면	
봄봄푸드	070-7501-9750
약목식품	054-974-4451
오거리식당	054-976-3200
장길산숯불갈비	054-974-1944
홍천뚝배기 약목점	054-973-2578
기산면	
경북과학대학교 식품공장	054-972-9721
왜관읍	
로얄구두수선	010-6523-7703
김밥나라푸드카페	054-972-5554
(주)제이에프	054-977-4433
클리어모터스	054-977-5446
드림디포 왜관중앙로점	054-974-0355
미성인테리어	054-974-3450
지천면	
금호한식뷔페	054-975-3518
영일유통	054-977-6969
군립지천어린이집	054-977-6661
동명면	
대동강가든	054-975-5453
비원정	054-976-8891
신라궁	054-975-9501
전주밥상	054-973-9910
토향	054-975-5280
투썸플레이스 칠곡동명점	054-973-6060
팔공산국한그릇	054-975-6524
팔공산이재욱호박오리	054-975-2488
강원오리	054-976-2847
언덕위의 산골집	054-975-9666
호반레스토랑	054-977-2666
호수가에	054-977-5209
휴온천	054-971-6363
평산아카데미	054-975-8008



지난 2007년 12월 경북 사랑의열매 착한가게 1호 탄생을 시작으로 경북 곳곳에 나눔의 물결이 전파되어 현재까지 3,420호 가업을 돌파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직격탄을 맞았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북 내 착한가게 해지 비율은 전년 대비 높지 않아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함께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

경북에서도 칠곡군은 발군의 나눔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8일 칠곡 내 착한가게 500호가 탄생하며 경북에서 가장 많은 착한가게를 보유한 지역으로 이름을 올렸다. 또 기성삼거리에서 한티로 구간의 50곳 식당 중 38곳이 착한가게에 가





입하며 경북에서 두 번째로 착한거리가 탄생했다. 칠곡의 인구는 경북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하다. 하지만 착한가게 가입 수는 경북 전체 착한가게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강한 나눔의 저력을 보여준다. 착한가게 500호 달성에서 그치지 않고, 현재 541호까지 돌파하며 여전히 가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맛있는 음식, 수려한 자연경관과 다양한 볼거리, 이색 체험까지 경북 칠곡에 가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특히 따뜻한 나눔 정신을 느끼고 싶다면 칠곡이 제격이다. 🍀



### MINI INTERVIEW

칠곡 착한가게 29호  
로얄구두수선 이종호 대표



“성격상 기부든 봉사든 남몰래 조용히 하고 싶었는데, 단골손님의 권유로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어요. 작은 나눔을 실천한 것이지만, 이를 계

기로 더욱 빠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구두 일을 한 지 28년째인데 이렇게 거리에 사람들 발길이 끊긴 건 처음 봐요. 그래도 제가 가진 기술을 보람 있게 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빨리 상황이 진정되어 칠곡에 많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칠곡 착한가게 500호  
토향 사공현·정현욱 대표



“지난해 4월에 가입했으니 벌써 1년이 넘었네요. 항상 이웃과 나누며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착한가게에 가입하며 뜻을 이루었어요. 비록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꾸준히 기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지요.

매년 이 무렵엔 닭·오리 백숙과 불고기를 찾는 단체 손님이 많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뚝 끊겨서 걱정이 많았어요. 최근엔 다시 가게를 찾는 분이 늘어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죠. 먹을거리 많고, 인심도 후한 칠곡으로 많이 놀러오세요.”

영화, 책, 공연... 열매 문화리스트

## 예술로 만나는 이웃 이야기

책과 영화, 그림과 음악, 노래와 춤이 있는 공연까지 모든 예술은 사람을 얘기한다. 그 속에 담긴 이웃들의 이야기를 문화 속에서 찾아봤다. 글 강은진 사진 각 영화사·출판사 제공

### MOVIE



#### <저산너머>

2020, 감독 최중태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시절, 가족의 사랑 속에서 마음 밭에 특별한 씨앗을 키워간 꿈 많은 일곱 살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힐링 무비다. 종교와 신앙을 초월해 모두를 품었고, 모두가 사랑한故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다룬 첫 극영화다. <오세암>을 비롯해 주옥같은 작품을 선보인故 정채봉 동화 작가가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그린 소설을 영화화했다.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라고 늘 기도한故 김수환 추기경의 바람처럼, 고통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위로와 희망, 따뜻한 감동을 전한다.

#### <원더> 2017,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뉴욕타임스> 선정 118주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원더>는 헬멧 속에 자신을 숨겼던 아이 ‘어기’가 세상의 편견에 맞서며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는 과정을 그린 감동 드라마다. 특유의 사랑스러운 화법으로 차별과 다름을 이야기해 관객의 공감을 이끌어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면 세상을 조금씩 바꿀 수 있다는 긍정과 희망을 전하는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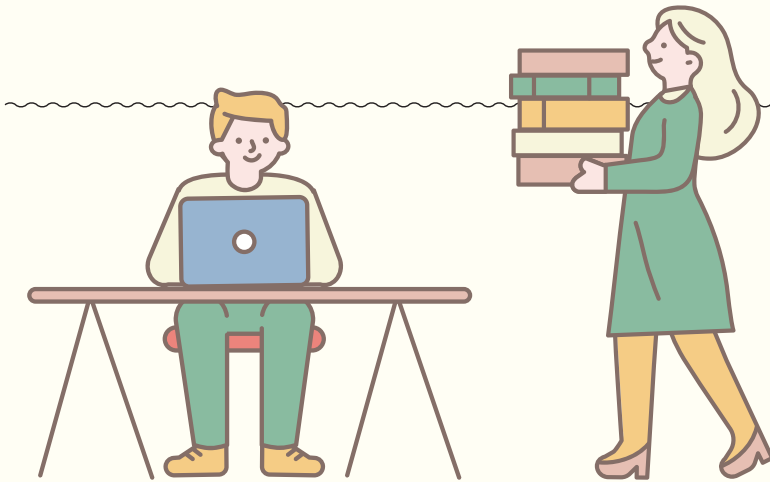


단지 겉모습이 남들과 조금 다른 아이와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다.

#### <가버나움> 2018, 감독 나딘 라바키

가난이 낳은 비극을 그린 이야기다. 포스터에 쓰인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요”라는 주인공의 말로 시작하는 영화는 실제 시리아 난민 출신으로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다 캐스팅된 자인(자인 알 라피아 역)의 눈빛 하나로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다. 학대와 가난 등 영화속 모든 고통을 실제로 겪은 아이들이 보여주는 연기가 완벽 이상인 것은, 이것이 아이들의 실제 삶이기 때문이다. 연기하지 않은 소년 때문에 모두가 눈물 흘린 영화다.





〈내가 우리 집에 온 날〉 차예은 ·  
신애라 지음 | 위즈덤하우스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만큼 특별한 관계가 또 있을까. 혈연으로 맺은 관계건 아니건 엄마와 딸의 만남은 운명이다. 배우 신애라와 입양되어 그녀의 딸이 된 차예은 양이 주고받은 편지를 엮은 이 그림책은 사람이 만들어낸 기적적인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민들레는 민들레〉 김장성 지음, 오현경 그림 | 이야기꽃

민들레는 흔하고 예쁘다. 게다가 피어나고 지고 다시 싹틔우는 생명의 순환을 거의 동시에 다 보여준다. 그런 까닭에 어린 독자에게 민들레의 한살이를 보여주는 생태 그림책이 적지 않다. 이 책도 민들레의 한살이를 담고 있지만, 민들레가 온몸으로 전하는 또 다른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기를 소망하는 책이다. 자기다움의 이야기, 자기 존중의 이야기, 그래서 저마다 꽃꽂히는 이야기이다.



〈3초 다이빙〉 정진호  
글·그림 | 위즈덤하우스

볼로냐에서 라가치상을 수상하고, 한국안데르센상과 황금도깨비상 등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림책 작가 정진호의 최신작이다.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아이. 달리기도 느리고, 수학 문제도 잘못 풀고, 급식 먹는 것조차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다.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고 재촉하는 시대지만, 이 아이는 누군가를 이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대신 똥 똥하든 말랐든, 키가 크든 작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모두 똑같이 3초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 수 있는 다이빙대가 좋다. 그리고 물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이 좋다. 경쟁 속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아주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제22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 아이들이 말하는 '달라서 빛나는 우리'

아동·청소년의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제22회를 맞은 올해는 '달라서 빛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지난 4월 6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글이선희 사진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이하 백일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소년한국일보·삼성화재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 KBS·CBS·WBC(복지TV)·사랑의열매가 후원하는 행사다. 매년 새로운 주제로 개최하는데, 올해 주제는 '달라서 빛나는 우리'로,

장애를 가진 친구와 어울려 학교생활을 잘하려면?, 장애를 가진 친구와 생활하면서 느낀 점, 장애를 가진 친구와 함께하며 발견한 장점, 장애인과 소통하기 위한 나의 작은 실천, 나눔을 통한 학교생활에 대한 경험이나 느낀 점을 작품에 담아 제출하면 된다.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면 응모 가능하다. ♣

### 응모 부문

- 초등학생 시, 산문, 독후감, 방송 소감문
- 중·고등학생 시, 산문, 방송 소감문, 웹툰 부문
- 방송 소감문 초등학생 <2020 대한민국 1교시-함께 그리는 그림> 중·고등학생\_장애 이해 교육 드라마 <거북이 채널> 시청 후 작성
- 위 해당 영상은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 응모 방법

- 우편, 이메일, 인터넷 링크를 통해 접수 (6월 30일 도착분까지 인정).
- 자세한 접수 방법과 일정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www.wefirst.or.kr](http://www.wefirst.or.kr))에서 확인. 수상자는 7월 31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공지 예정



2020 대한민국 1교시 '함께 그리는 그림' 영상

흥 많은 사람이라면 도전!

#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슈퍼스타챌린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환기하고, 극복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사랑의열매가 응원 캠페인 '슈퍼스타 챌린지'를 진행한다.

응원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면 누구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클이선희 자료 사랑의열매



## 참 쉬운 슈퍼스타챌린지 참여방법

**참여방법 ①** 가수 이한철 등 18명 등의 아티스트가 포함된 방-방 프로젝트 '슈퍼스타'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악기 연주, 춤을 추는 모습 등 '슈퍼스타' 노래를 활용한 자유 영상을 촬영한다

**②**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에 필수 해시태그 4개와 함께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다.

필수 태그(#슈퍼스타챌린지 #괜찮아잘될거야 #힘내라대한민국 #사랑의열매)를 모두 입력해야 정상 참여로 인정된다.

**참여기간** 2020년 5월 13일~6월 30일

**참여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경품** 슈퍼스타 챌린지 참여자 중 대국민투표로 우수작을 선정한다. 우수작에 선정되면 갤럭시S20, 대구경북지역 사회적기업상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식사권 등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 슈퍼스타 챌린지 영상을 쉽고 재밌게 찍고 싶다면

틱톡(TikTok) 앱을 이용하면 영상 편집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슈퍼스타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제작 툴을 활용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나의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틱톡으로 슈퍼스타 챌린지에 참여하면 해시태그 자동화 등을 통해 좀 더 쉽게 도전이 가능하다.

중앙회



사랑의열매, #덕분에 챌린지 참여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시작한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지난 5월 8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의 지목으로 사랑의열매 예종석 회장과 김연순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 사랑의열매 측은 "사랑의열매가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봉사자 여러분, 위기 가정의 어려움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전해주시는 기부자님 덕분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랑의열매는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권미영 센터장)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김민아 회장) 그리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연복 셰프를 지목하며 동참을 부탁했다.



작고한 부인을 기리며 부부 아너 가입

한라공조(주) 신영주 前 회장이 2억 원을 기부하며 올해 초 작고한 부인 故 최용옥 씨와 함께 부부 아너 회원으로 가입했다. 지난 5월 6일에 열린 가입식에서 신 회장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작은 성금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부금은 신 회장의 뜻에 따라 지적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관 및 단체 지원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오션그룹·대한수영협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전달

지난 4월 28일 어린이 레슨 전문 수영장을 운영하는 오션그룹·대한수영협회(대표 구호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482만 원을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오션그룹 임직원 200명이 모은 382만 원에 대한수영협회에서 기탁한 100만 원을 더해 마련했다. 오션그룹 구호준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조금이나마 격려하기 위해 기부에 나섰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1호 (주)좋은아침, 성금 전달  
 서울 사랑의열매는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5일간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을 진행한다. 서울 시민이 다 함께 동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이웃을 응원하는 캠페인으로 지자체, 공공 기관, 기업의 임직원 급여 및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일반 기부 등을 포함한다.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 지원과 일시적 소득 상실로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 및 실직자 지원 등에 쓸 계획이다. (주)좋은아침 페스츄리(대표 최세호)는 서울 역삼 직영점의 한 달 매출 전액인 2,000만 원을 기부하며 ‘힘내라! 서울’ 나눔캠페인 1호 참여자가 됐다. 최세호 대표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기부가 아니라 한 달간 고객과 함께 모은 돈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전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좋은아침 역시 매출이 감소했지만 꾸준한 나눔 활동 덕에 회사가 그만큼 성장한 것이라 생각해 나눔에 우선가치를 두고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주)리얼피에셋 박병찬대표이사, 나눔리더 가입**  
 (주)리얼피에셋 박병찬 대표이사가 회귀난치성 질환 환아를 위한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하며, 서울 나눔리더 61호로 가입했다. 성금은 난치병을 앓는 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책 ‘누나가 되었어요(글 김동기, 그림 박서영)의 1차 수익금 전액으로, 저간장성척추측만을 앓고 있는 환아와 소아병동 어린이들의 병원비로 지원한다. 박 대표이사는 “김동기 목사님께서 글을 쓰시고 제 딸이 삽화를 그리며 책 출간에 함께 참여했는데, 이 책의 수익금으로 좋은 일을 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전했다.



**SC제일은행, 소셜 벤처 대상 6억 원 지원 협약**  
 서울 사랑의열매와 SC제일은행은 사회연대은행을 통한 소셜 벤처기업(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SC제일은행은 협약을 통해 6억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공공 의료와 보건 서비스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기여한 소셜 벤처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긴급 운영 자금, 온라인 판로 지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성장 지원금 등을 받게 된다.

## 부산



### ‘힘내라 부산! 캠페인’ 긴급재난지원금 공동 1호 기부

(주)에스엠산업 송연익 대표와 뉴라인성형외과 손희동 원장이 각각 정부로부터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써달라며 부산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송 대표와 손 원장은 나눔리더 1호와 7호로 평소에도 꾸준한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기부에는 부산 사랑의열매 신정택 회장이 함께 참여해 세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공동 1호가 됐다.



### (주)세정, 금정구 사회복지시설에 열화상 카메라 지원

지난 5월 15일 (주)세정(회장 박순호)이 금정구 내 사회복지시설 16개소에 설치할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1,600만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박순호 회장은 “많은 구민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은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세정은 코로나19 특별모금에도 1억 원을 쾌척했으며, 매년 3억 원 규모의 성금과 성품을 기부하는 부산 대표 나눔 실천 기업이다.

## 대구



### 킨더퍼페츠, 손 소독제 3만 개 전달

아기 화장품 브랜드 킨더퍼페츠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500ml 손 소독제 3만 1,600개를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킨더퍼페츠에서 1억 100만 원, (주)신일상사에서 3,900만 원을 지원해 준비한 것으로, 두 회사 모두 안동혁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안 대표는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소독제는 대구 내 경제적 취약 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이웃과 현장 의료진에게 우선 배분할 예정이다.



### 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성금 1,000만 원 기부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상임대표 신동학)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대구 첫 여성 전문 의료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인 신동학 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에 작은 손길이나마 보태기 위해 나눔을 결심했다”며 “저력 있는 대구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인천



**인천택주, 나눔명문기업 8호 가입**

인천 아너 소사이어티 50호 정규성 아너가 대표로 있는 인천택주가 인천 나눔명문기업 8호로 가입했다. 2010년부터 약 8억 원을 기부하며 다양한 복지 분야를 지원해온 인천택주는 인천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올해 처음 '소성사회복지사상'을 제정하고, 기업 사회공헌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인천택주의 성금 1억 원은 소성사회복지사상 운영 및 마을 조합 자립 지원, 저소득층 긴급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성금 17억 원 쾌척**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분환)가 인천 중구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금 17억 원을 지난 5월 12일 인천 사랑의열매에 쾌척했다. 기부금은 중구 거주 저소득층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중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전달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의 위기 극복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



**하이트진로, 광주사랑기금 2,000만 원 전달**

지난 5월 13일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광주 사랑의열매에 광주 사랑기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올해 1분기 동안 판매한 테라와 참이슬, 진로이즈백 1병당 1원씩 적립한 금액으로, 광주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 하이트진로는 2010년부터 광주 사랑기금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6억 2,0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부했으며,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으로 훈훈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제이앤제이우드 정길주 대표, 아동 신학기 용품 지원**

지난 5월 19일 (주)제이앤제이우드 정길주 대표가 신학기 입학하는 아동 생활 시설의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2,000만 원 상당의 아동 용품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91호 회원인 정길주 대표는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 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정 대표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길 바란다"며 "신학기 용품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대전



### 대전교도소 수형자들, 코로나19 위기 극복 성금 기탁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 474명이 지난 4월 22일 대전 사랑의열매에 성금 836만 8,000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수형자들이 구슬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로 받은 작업장려금을 모아 마련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과 취약 계층의 방역,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474명의 수형자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지난 4월 2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회장 김양수)는 대전 사랑의열매가 추진하는 나눔리더스클럽에 3호로 가입했다. 전문 건설업의 육성과 발전, 회원사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광역시회는 매년 다양한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나눔리더스클럽은 모임, 단체, 협회 등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를 가리키며, 3년 내 1,00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울산



### 씨이뉴클리어파워인터내셔널인크 한국지점, 성금 기탁

지난 5월 26일 씨이뉴클리어파워인터내셔널인크 한국지점(사장 정동현)이 울산 사랑의열매에 '힘내라! 울산' 나눔캠페인 성금 1,836만 4,050원을 기탁했다. 정동현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기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성금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 세민병원, 울산114호 착한기업으로 가입

울산 중구에 위치한 세민병원(원장 이창민)이 지난 5월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학성동 1호이자 중구 7호, 울산 전체 114호로 착한기업에 가입했다. 매년 수익금 가운데 100만 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따뜻한 온정을 전하게 된다. 착한기업은 매년 100만 원 이상 기부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모금사업이다.

경기



**하남시공직자후원회, 위기 가구 지원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 하남시 공직자후원회는 지난 4월 29일 경기 사랑의열매와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하남시 공직자 후원금·선택적 복지 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긴밀한 협력으로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하남시 공직자후원회는 그간 자율적 기부와 공무원 복지카드 적립 기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지원해왔다.



**윤성욱 원장, 224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그레이스치과 윤성욱 원장이 지난 4월 23일 경기 사랑의열매 224 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했다. 평소 위기 가정에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온 윤성욱 원장은 “위기 가정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윤 원장의 성금 1억 원은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용인시 내 저소득층의 의료비로 지원한다.

경기북부



**의정부시 복지 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진행**

지난 5월 7일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의정부시, 의정부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의정부시 동(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의정부시의 복지 자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은 보다 폭넓은 지역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조성한 재원은 관내 어려운 이웃 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포천시, 이웃 돕기 협력 사업 우수 시군 선정**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2019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이웃 돕기 협력 사업 우수 시군으로 포천시(시장 박윤국)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2019년에는 포천시 공무원 400여 명이 정기 기부에 참여하며 ‘착한일터’ 1호로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나눔리더스클럽 2곳, 나눔리더 14명이 포천시에서 탄생했다. 2020년에도 포천시의 기부행렬은 계속돼 5월 20일 기준, 5억여 원의 성금과 물품이 모였다. 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다.

## 강원



### 건드리잇집 신건혁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지난 5월 12일 강릉 건드리잇집 신건혁 대표의 가입으로 강원 아너 소사이어티 76번째 회원이 탄생했다. 평소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며 나눔을 통한 지역 사랑을 실천해온 신건혁 아너는 엄지네포장마차 김미자 아너의 권유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다. 신건혁 아너는 “이번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강원랜드, 폐광 지역 학생에 정보화 기기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맞은 가운데, 지난 4월 21일 강원랜드가 전국 폐광 지역 초·중·고교를 위해 20억 원을 지정 기탁했다. 강원 사랑의열매는 이 기금으로 정선, 태백, 영월, 삼척 등 7개 시군 폐광 지역 학교에 태블릿 PC 3,000여 대를 기증했다. 또 저소득 가정 학생에게는 인터넷 비용을 지원했다. 강원랜드 문태곤 대표이사는 “긴급 지원이 폐광 지역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충북



### KT&G 충북본부, 성금 1,000만 원 기탁

지난 5월 6일 KT&G 충북본부(본부장 경지호)는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KT&G 충북본부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적절한 KT&G 상상펀드에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한 매칭 그랜트 형태로 마련했다. 충북 사랑의열매는 성금으로 쌀 10kg, 라면, 화장지 등 생필품 세트를 마련해 지역 소상공인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다. 경지호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계층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충북 한돈협회, 3,000만 원 상당 돼지고기 나눔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춘일)가 지난 5월 14일 3,0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탁한 돼지고기는 한돈협회 회원들이 돼지를 키우며 조성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생하는 의료 기관 종사자와 지역 사회 기관, 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춘일 회장은 “코로나19 극복에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충남



**‘365일 행복 더하기뱅크 사업’ 업무 협약 체결**

충남 사랑의열매는 서산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 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서산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365일 행복 더하기뱅크 사업’은 시민들이 후원 계좌(스산 복주머니)에 1인당 1,000원 이상을 정기 또는 수시로 기부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산시는 지역사회의 복지 서비스 요구에 맞춰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계룡건설, 코로나19 극복 지원 성금 3,000만 원 전달**

지난 4월 28일 계룡건설(대표이사 이승찬)은 충남 사랑의열매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성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지난 2월에 이웃 돕기 성금 3,000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 기부다. 이승찬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모두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전북



**금강방송, 군산시에 성금 5,000만 원 기탁**

종합유선방송업체인 금강방송(주)(대표 이한오)이 지난 5월 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5,000만 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금강방송 이한오 대표는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을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좋겠다”며 “정확하고 알찬 정보를 전달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금강방송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KT&G 전북본부, ‘상상나눔 도시락’ 전달**

경로 식당의 무료 급식 운영 중단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홀몸어르신에게 KT&G 전북본부가 지난 4월 29일 9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상상나눔 도시락’을 전달했다. 상상나눔 도시락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고, 홀몸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KT&G 전북본부 직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조성한 KT&G 상상편드를 이용했으며,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다.

## 전남



### (주)호연건설 윤재성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지난 4월 28일 (주)호연건설 윤재성 대표이사께서 전남 사랑의열매의 아너 소사이어티 약정 화원이 됐다. 호연건설은 전남 곡성에 있는 옥외 시설 축조 관련 공사 전문 업체다. 윤재성 대표의 참여로 곡성에서는 3번째이자 전남에서는 95번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다. 이날 가입식에서 윤재성 대표는 “지역에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 가입을 결심했다”며, “고향의 복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 사회 공헌 업무 협약

전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4월 22일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본부장 문흥식)와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맺고 성금·성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성금은 우리은행 광주전남영업본부 및 관할 19개 지점에 모금함을 비치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했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손 소독제 500개를 함께 기탁했다. 문흥식 본부장은 “지역 사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 경북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성금 전달

지난 4월 20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노기경)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4개월분 임금의 일부인 5,600여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동경주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홀몸어르신, 기타 생계 곤란자 등을 지원하는 데 쓴다. 노기경 본부장은 “기부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새농민 경상북도회, 성금 1,000만 원 기탁

(사)한국새농민 경상북도회(회장 권대오)는 지난 5월 8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받은 성금은 한국새농민 경상북도회와 23개 시군회 임원들의 모금 활동으로 마련했다. 권대오 회장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도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



경남 사랑의열매, '덕분에 챌린지' 동참

지난 5월 6일 경남 사랑의열매가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했다. 덕분에 챌린지는 SNS에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 사진을 올리고 '#덕분에캠페인', '#의료진덕분에' 등 3개의 해시태그를 붙이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이번 챌린지는 지난 4월 30일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양대복 회장의 지명을 받아 고생하는 의료진과 도민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로 진행했다.



코로나19 2차 긴급 구호 물품 지원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4월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배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2차 긴급 구호 지원으로 경상남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협회를 통해 마스크 5만 5,629장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223여 곳에 전달했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3월 1차로 경상남도 내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5,000만 원 상당의 소독제를 전달한 바 있다.

제주



제주대학교,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지난 4월 17일 제주대학교(총장 송석연)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을 위한 성금 1,018만 5,000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제주대학교 교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련 피해 복구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산림조합, 1,000만 원 상당 물품 지원

제주 지역 산림조합(지역본부장 이호출, 제주시조합장 김근선, 서귀포시조합장 오형욱)이 지난 4월 24일 1,000만 원 상당의 표고버섯과 쌀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제주 지역 산림조합 3개 기관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임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운 임업인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이호출 지역본부장은 "면역력 증강과 암 예방에 탁월한 표고버섯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



**나우코스, 착한일터 가입 및 장학 사업 협약**

지난 5월 6일 (주)나우코스가 세종시 착한일터에 가입하고, 소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주)나우코스는 지난 2015년부터 전의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학생 10명에게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소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약을 통해 (주)나우코스는 추가로 소정면에 있는 청소년 7명에게 학업 및 자기 계발을 위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달빛어린이집, 착한일터 가입**

국공립 세종달빛어린이집(원장 김민수)이 지난 5월 12일 세종 사랑의열매에서 진행하는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김민수 원장은 "우리가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지역 내 나눔에 사용되길 바란다"며 "아이들에게 기부 문화를 알려줄 수 있어 보람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달빛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손수 만든 아동 마스크도 전달하며 사랑을 전했다.

사랑의열매 다양한 기부 방법

**문자 기부**  
#9004  
한 통에 2,000원

**ARS 기부**  
060-700-1212  
한 통에 3,000원

**온라인 기부**  
같이가기  
with kakao

**기념일 기부**  
좋은 날,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눠요  
문의 02-6262-3082

**이벤트 기부**  
즐거운 행사와  
사랑 나눔을 함께  
즐거보세요

**상담 혹은 문의가  
필요하다면**  
080-890-1212

**계좌 기부**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	003137-04-000306
농협	1082-01-001966
신한	100-013-446845
외환	068-13-21097-3
우리	052-581567-13-101
하나	399-810005-31705





##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의 모임입니다.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더 밝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회 지도자입니다. 국내 최초 고액 기부자 모임이자 국내 최대 기부자 클럽으로,  
한국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사랑의 가치를 창조해나가며 기부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는 가슴 따뜻한 리더들입니다.

서울 291호



**김준용 (주)마이프랜차이즈 대표**  
“누군가가 아닌 ‘내가’,  
언젠가가 아닌 바로 ‘지금’부터  
해야하는 것입니다.”

서울 292호



**김영미 NFP홀딩스 금융자산관리사**  
“기부는 시작이 불평등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일입니다.”

서울 293호



**이완기**  
“이런 나눔으로 마음의 빛을 더는 것  
같이 훌륭한 기본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나눔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141호



**김한길 오늘의운동 대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부모님과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북 115호



**이상배 (주)칸나 회장**  
“기부는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후원과 봉사 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경북 117호



**최대성 한일수산 대표**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지역 사랑을  
더욱더 실천해나가겠습니다.”

경북 118호



**故 The Rev. Frank F. Fagan III 특별회원**  
“나눔의 은혜를 이젠 감을 수 있게 되어  
행복하며, 그분의 이름이 널리 빛나서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76호



**신건혁 건도리횡집 대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충북 57호



**신영주 前 한라공조(주) 회장**  
“어렵고 힘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충북 58호



**故 최홍욱 충북 57호 신영주 아너 배우자**  
“2020년 작고한 고인을 기리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추대해 가입했습니다.”

경기북부  
41호



**최용재 트트어린이병원 대표원장**  
“나눔의 길은 생명의 길”

**전남 윤재성 (주)호연건설 대표이사**  
제주 익명

##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 지난호 독자 의견

○ 오랫동안 모아온 용돈을 전액 코로나9 성금으로 기부한 여덟 살 김인우 군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어른들이 보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해온 용돈이라 하고 싶은 것도,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나눔을 결정한 모습이 참 감동적이고 대견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인우 군의 말처럼, 심시일만 마음을 모아 코로나 19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은숙, 경기도 광주시



○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기사를 읽으면서 난민을 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차별과 편견으로 상처받는 난민들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지만, 국가나 공공 차원의 난민 지원이 부족해 난민의 기본 생존권은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인데, 안산시글로벌청 소년센터에서 이 간극을 매우 기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난민들이 한국에서 난민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 장송기, 전북 전주시



○ '시민과 함께 성평등 언어로 바뀌요' 기사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단어가 성차별 단어가 될 수 있다는 점, 무심코 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의 불식과 의식구조 전환은 일상 속 언어 사용 개선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보게 한 기사였습니다. - 유재범, 서울시 성북구



###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시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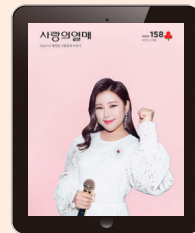


파우치(색상 랜덤)



안마봉

### 〈사랑의열매〉를 e-book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사랑의열매〉 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PC 홈페이지상단  
공동모금회 → 홍보자료 →  
출판 및 인쇄 → 회보

모바일 홈페이지 하단 회보

홈페이지 [www.chest.or.kr](http://www.chest.or.kr)

#함께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캠페인

# 코로나19 위기탈출 나눔 No.1



‘#함께극복 **힘내라!** 대한민국 나눔 캠페인’은  
지치고 힘든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을 돕는 범국민 나눔캠페인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나눔으로  
용기와 희망을 전하세요!

• 기부참여 홈페이지 [chest.or.kr](http://chest.or.kr) • 기부상담 080-890-1212

숨은 사랑의열매를 찾아주세요



그림 속에 사랑의열매가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사랑의열매를 찾아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응모 방법** 숨은 그림을 찾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사랑의열매 #모두의나눔 #숨은열매찾기**

사랑의열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를 팔로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